변형문제 유형편 — 흐름

2025년 10월 고1 모의고사

고1 · 영어영역

문제편

수록 유형

글의 순서 12문항
문장 삽입 12문항
무관한 문장 18문항

글의 순서

25년 10월 고1 20번

1 글의 순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sustaining long-term relationships is communication.

(A) For example, if you come across an article or resource that you think might interest a connection, share it with them, even if you haven't spoken in a while. This shows that you're thinking of them and are invested in maintaining the relationship.

(B) This doesn't mean constantly reaching out with requests or updates but rather maintaining a friendly and consistent line of communication. A simple message to check in or share something of value can go a long way in reinforcing your relationship.

(C) It's easy to connect with someone and then let the relationship get stuck due to a lack of follow-up. To keep the connection alive, make a conscious effort to stay in touch.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25년 10월 고1 22번

2 글의 순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 increasing awareness of our effect on the ocean is slowly seeping into the public agenda, dragging behind it a conversation that is decades overdue. But this conversation faces a massive obstacle.

(A) It's almost impossible to discuss what to do about something changing if you don't initially know how it works. If a doctor tells a patient that they have a problem with their kidneys, the patient probably already has at least a vague idea about where their kidneys are and what they're up to.

(B) But there's far more to it than the risk of whales going hungry. Krill are a part of the ocean engine. We need to understand at least some of the context before we can discuss the change and take appropriate action.

(C) They learned about that part of their own personal life-support system at school. But that's not the case for the oceans. When we see a news story about the long-term decline in the numbers of krill in the Southern Ocean, it sounds generally like a bad thing.

* seep: 스며들다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25년 10월 고1 26번

3 글의 순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Dalip Singh Saund was an Indian-born American politician. After graduating from the University of Punjab in India, he moved to the U.S. to attend graduate school.

(A) He later became the first Asian to be elected to the U.S. Congress.

(B) He earned his doctoral degree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in 1924 but could not get a job because of his nationality. The next year, he began farming in Imperial Valley, but he was not able to buy land without U.S. citizenship. Dalip developed an interest in politics and he often spoke out on Indian and political topics.

(C) He went to Washington, D.C. and promoted a bill that would allow Indians to become U.S. citizens. The bill was passed in 1946, and three years later Dalip received U.S. citizenship.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25년 10월 고1 29번

4 글의 순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Human beings have evolved to make the most of the resources available to them in ways that are subtle and complicated.

(A) If we have eaten certain foods in certain ways for millennia, we should assume until it is proven otherwise that there is probably a good reason why. Traditional foods that don't fit neatly on the contemporary dietary food plate should generally be chosen over highly processed ones that do.

(B) We should assume that traditionally made fatty blood sausages are preferable to lean, factory-made salamis; that spoonfuls of honey are superior to sprinkles of sweeteners. Witnessing how poorly traditional societies are faring as they undergo a nutrition transition should make those who have already completed it question whether their diets have moved too far.

(C) When we change our diets, especially when we do so quickly, we are effectively conducting huge experiments in nutrition. We ought to have more humility. Nutritional science is still young and there is so much we do not know.

* humility: 겸손 ** fare: 살아가다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변형문제 유형편 — 흐름

2025년 10월 고1 모의고사

고1 · 영어영역

정답/해설편

정답 한눈에 보기

1 ⑤	2 ①	3 ③	4 ④	5 ②	6 ③	7 ④	8 ②	9 ⑤	10 ①
11 ④	12 ②	13 ③	14 ③	15 ⑤	16 ①	17 ④	18 ②	19 ③	20 ⑤
21 ④	22 ①	23 ④	24 ⑤	25 ④	26 ③	27 ⑤	28 ②	29 ①	30 ②
31 ①	32 ⑤	33 ④	34 ③	35 ②	36 ①	37 ④	38 ③	39 ⑤	40 ⑤
41 ③	42 ④								

1 글의 순서

정답 ⑤

정답 근거

주어진 글은 소통이 장기적 관계 유지의 핵심이라고 한다. (C)가 후속 연락이 없으면 관계가 멈추기 쉽다며 '의식적으로 연락을 이어 가라'고 잇는다. (B)의 This doesn't mean은 (C)의 '연락을 이어 가라'를 받아 그 뜻을 좁히고 '간단한 메시지'를 꺼낸다. (A)의 For example은 그 메시지의 구체적 예(기사 공유)를 들어 마무리한다.

선지 분석

① **연결어 단서** — (A)의 For example이 예로 받을 일반 진술(간단한 메시지)이 주어진 글 바로 뒤에는 아직 없다.

② **지시어 단서** — (B)의 This가 가리킬 '연락을 이어 가라'는 (C)에 있으므로 (B)가 맨 앞에 올 수 없다.

③ **지시어 단서** — (B)의 This doesn't mean은 (C)의 stay in touch를 받는 말이라 (C)보다 앞설 수 없다.

④ **연결어 단서** — (A)의 For example은 (B)의 '간단한 메시지'를 예로 드는 말이라 (B) 뒤에 와야 한다.

⑤ **정답**

전문 해석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소통이다. 누군가와 연결된 뒤 후속 연락이 없어 그 관계가 정체되도록 내버려 두기는 쉽다. 그 연결을 살아 있게 유지하려면 의식적으로 노력하여 연락을 이어 가라. 이것은 요청이나 근황을 들고 끊임없이 연락하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친근하고 꾸준한 소통의 끈을 유지하라는 뜻이다. 안부를 묻거나 가치 있는 무언가를 나누는 간단한 메시지 하나가 관계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는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생각되는 기사나 자료를 우연히 발견하면,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그들과 공유하라. 이것은 당신이 그들을 생각하고 있으며 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마음을 쏟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2 글의 순서

정답 ①

정답 근거

주어진 글은 해양 논의가 「거대한 장애물」에 부딪힌다고 끝난다.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 밝히는 (A)(작동 원리를 모르면 논의가 불가능 · 신장 예시)가 먼저 온다. (C)의 They는 (A)의 환자를 받아 「학교에서 배웠다」로 잇고, 「바다는 그렇지 않다」로 크릴 뉴스를 꺼낸다. (B)의 But there's far more to it은 (C)의 「나쁜 일처럼 들린다」를 받아 결론(맥락 이해가 먼저)으로 닫는다.

선지 분석

① **정답**

② **연결어 단서** — (B)의 But은 크릴 뉴스에 대한 반응을 받는 말이라 주어진 글 바로 뒤에 올 수 없다.

③ **연결어 단서** — (B)가 먼저 오면 But이 받을 「나쁜 일처럼 들린다」가 아직 없다.

④ **지시어 단서** — (C)의 They가 가리킬 환자가 (A)에서 먼저 나와야 한다.

⑤ **지시어 단서** — (C)의 They는 (A)의 환자를 받으므로 (C)가 (A)보다 앞설 수 없다.

전문 해석

우리가 바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대중의 의제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고 있으며, 수십 년이나 늦어진 논의를 그 뒤에 끌고 오고 있다. 그러나 이 논의는 거대한 장애물에 부딪힌다. 어떤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처음부터 알지 못하면, 그것이 변하는 것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의사가 환자에게 신장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 그 환자는 아마 자기 신장이 어디에 있고 무슨 일을 하는지 적어도 막연하게는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 몸의 생명 유지 장치의 그 부분에 대해 학교에서 배웠다. 하지만 바다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남극해의 크릴 개체 수가 장기적으로 줄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 그것은 대체로 나쁜 일처럼 들린다. 하지만 거기에는 고래가 굶주릴 위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걸려 있다. 크릴은 바다라는 엔진의 한 부분이다. 우리는 그 변화를 논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적어도 그 맥락의 일부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3 글의 순서

정답 ③

정답 근거

주어진 글은 달립이 대학원에 다니려고 미국으로 건너갔다고 끝난다. 대학원 과정의 결과인 박사 학위(1924)와 이듬해 농사, 정치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는 (B)가 먼저 온다. (C)는 그 정치 관심을 받아 워싱턴에서 시민권 법안을 홍보하고 시민권을 얻는 이야기이며, (A)의 later는 시민권을 얻은 뒤 의회 진출로 글을 닫는다.

선지 분석

① **연결어 단서** — (A)의 later(나중에)는 앞선 일들 뒤를 받는 말이라 주어진 글 바로 뒤에 올 수 없다.

② **연결어 단서** — 의회 선출(A)이 시민권 취득(C)보다 앞서면 later가 가리키는 시간 순서가 뒤집힌다.

③ **정답**

④ **연결어 단서** — (C)의 법안 홍보는 (B)의 정치 관심을 받아야 하므로 (B)보다 앞설 수 없다.

⑤ **연결어 단서** — (C)가 먼저 오면 박사 학위·농사(B)보다 시민권 취득이 앞서 시간 순서가 무너진다.

전문 해석

달립 싱 사운드는 인도 태생의 미국 정치인이었다. 인도의 펀자브 대학교를 졸업한 뒤, 그는 대학원에 다니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는 1924년에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국적 때문에 일자리를 얻을 수 없었다. 이듬해 그는 임피리얼 밸리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지만, 미국 시민권이 없어서 땅을 살 수 없었다. 달립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인도 관련 주제와 정치 주제에 대해 자주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그는 워싱턴 D.C.에 가서 인도인이 미국 시민이 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홍보했다. 그 법안은 1946년에 통과되었고, 3년 뒤 달립은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 그는 나중에 미국 의회에 선출된 최초의 아시아인이 되었다.

4 글의 순서

정답 ④

정답 근거

주어진 글은 인간이 자원을 미묘하게 활용하도록 진화했다고 한다. (C)가 「When we change our diets」로 그 진화한 몸에 식단 변화라는 실험을 꺼내고 겸손을 요구한다. (A)는 영양학이 모르는 것이 많다는 (C)를 받아 '오래 먹어 온 음식에는 이유가 있다 · 전통 음식을 고르라'로 잇는다. (B)는 그 전통 음식의 구체적 예(선지 소시지 · 꿀)를 들고 결론으로 닫는다.

선지 분석

① **연결어 단서** — (A)의 '이유가 있다고 가정하라'는 (C)의 '모르는 것이 많다'를 받아야 자연스럽다.

② **지시어 단서** — (B)의 구체적 예시는 (A)의 전통 음식 일반론 뒤에 와야 한다.

③ **지시어 단서** — (B)가 먼저 오면 예시가 무엇을 받치는지 앞에 나와 있지 않다.

④ **정답**

⑤ **연결어 단서** — (B)의 예시가 (A)의 '전통 음식을 고르라'보다 앞설 수 없다.

전문 해석

인간은 미묘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진화해 왔다. 우리가 식단을 바꿀 때, 특히 빠르게 바꿀 때, 우리는 사실상 거대한 영양 실험을 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더 겸손해야 한다. 영양학은 아직 젊은 학문이고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 만약 우리가 수천 년 동안 특정한 음식을 특정한 방식으로 먹어 왔다면, 달리 증명되기 전까지는 아마도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해야 한다. 현대의 식단 권장 식품 접시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는 전통 음식이, 거기에 들어맞는 고도로 가공된 음식보다 대체로 선택되어야 한다. 전통 방식으로 만든 기름진 선지 소시지가 기름기 적은 공장제 살라미보다 낫고, 꿀 몇 숟가락이 감미료 몇 번 뿌린 것보다 우월하다고 가정해야 한다. 전통 사회가 영양 전환을 겪으면서 얼마나 형편없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목격하는 것은, 이미 그 전환을 마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식단이 너무 멀리 와 버린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게 해야 한다.

5 글의 순서

정답 ②

정답 근거

주어진 글은 편리함과 기술이 유일한 요인은 아니라고 한다. 그 다른 요인을 밝히는 (B)가 먼저 와 '가치 지향 · 투명성 · 책임 없는 기관에 대한 회의'를 꺼낸다. (A)의 They는 (B)의 Z세대를 받아 투명성 기대를 설명하고 Moreover로 윤리를 더한다. (C)의 They are interested in sustainable investing은 (A) 끝의 '환경 · 사회 정의에 관심'을 받아 결론(그런 은행이 관심을 끈다)으로 닫는다.

선지 분석

① **지시어 단서** — (A)의 They가 가리킬 Z세대의 성향이 (B)에서 먼저 나와야 한다.

② **정답**

③ **지시어 단서** — (C)의 지속 가능한 투자는 (A)의 '환경 · 윤리에 관심'을 받아야 하므로 (A)보다 앞설 수 없다.

④ **지시어 단서** — (C)가 주어진 글 바로 뒤에 오면 They가 받을 내용이 없다.

⑤ **지시어 단서** — (C)가 먼저 오면 결론이 앞서고 투명성 설명이 뒤로 밀린다.

전문 해석

편리함과 기술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들이 Z세대의 금융 결정을 이끄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 이 세대는 놀라울 정도로 가치 지향적이어서, 자신의 개인적 신념과 가치에 맞는 기관과 거래하고 싶어 한다.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 Z세대는 책임을 지지 않는 대기업과 기관을 회의적으로 본다. 그들은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 자랐고, 자신이 지지하는 브랜드에 완전한 투명성을 기대한다. 예를 들어, 은행은 수수료, 약관, 조건뿐 아니라 고객의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 게다가 윤리적인 은행 업무 관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Z세대는 환경, 사회 정의, 그리고 자신의 금융 결정이 지닌 윤리적 함의에 관심을 둔다. 그들은 지속 가능한 투자, 자신의 가치에 맞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돈이 해로운 관행에 자금을 대는 데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 전념하는 은행이 Z세대의 관심을 끌 것이다.

6 글의 순서

정답 ③

정답 근거

주어진 글은 '신화는 단지 이야기만이 아니다'라는 일반론이다. (B)가 For example로 시금치 철분 신화를 예로 들고 그 출발을 Bunge의 계산 착오라고 밝힌다. (C)의 He는 (B)의 Bunge를 받아 착오의 내용과 정정이 잊힌 일을 말한다. (A)의 The myth had taken hold는 (C)의 '정정이 잊혔다'를 받아 신화가 오늘날까지 이어진 결과로 닫는다.

선지 분석